

# 귀중함에 대한 생각

장 철 범

잠자는 산천을 깨우며 떠들썩하게 착공의 첫 동음을 울리던 때가 엇그제같은데 우리는 벌써 말겨진 건설을 끝내고 기쁨속에 시양묘장을 떠나게 되었다.

나는 떠나기에 앞서 동무들과 우리가 건설한 양묘장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곳으로 올랐다.

《야, 한쪽의 그림갈구나!》

양묘장의 전경을 바라보니 저절로 환성이 튀어나왔다. 가슴속이 울리면서 다는 몰랐던 궁지에 넘친 환희가 솟구쳐올랐던것이다.

나는 솟구쳐오르는 환희를 애써 누르며 양묘장을 둘러보았다.

사열받는 열병대오같은 규격포전들과 파아란 새순이 움트는 나무모들, 방파제처럼 일매지게 뻗어나간 제방둑, 비단필처럼 반짝이며 흐르는 수정천과 그우에 무지개처럼 건너간 수정다리, 산기슭에 일떠선 아담한 살림집들... 펼쳐진 전경은 그대로 한쪽의 그림이었다.

정말 감회가 새로웠다.

평범한 나날 무심히 보아오것들이 오늘은 새로운 느낌속에 조국의 모습으로 뜨겁게 안겨오는것은 무엇때문일까.

문득 보람찼던 군사복무의 나날이 눈앞에 떠오른다.

그때 웅장화려한 려명거리건설을 완공한 우리들은 철수명령을 받았지만 누구도 선뜻 떠나지 못하고 우리들의 땀이 스민 초고층살림집들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다.

《동무들이 막상 떠나자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모양이구만.》

《그렇습니다, 소대장동지.》

우리는 한목소리로 대답했다.

소대장동지는 머리를 끄덕이며 잠시 훌륭하게 건설된 려명거리의 여기저기를 둘러보더니 감회깊은 어조로 말하였다.

《나도 동무들과 같은 심정이요. 려명거리의 화려한 건물들과 저 초고층살림집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아낌없이 바친 우리 병사들의 충정의 마음이라고 난 생각하오. 우리 그 귀중한 마음을 안고 당이 부르는 새로운 전투장으로 떠납시다.》

그날 우리는 사회주의강국건설도 조국보위도 우리가 다 맡았다는 커다란 긍지를 다시금 새겨안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군복을 벗은 지금도 그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해도 조국의 귀중함을 새삼스럽게 느껴보곤 하는 나였다.

생각에서 깨어난 내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는데 옆에서 동무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보낸 날은 며칠되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쉽게 떠나게 되지 않는구만.》

《글쎄... 그게 뭔지.》

그들의 말은 나에게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그게 뭘가?

우리 비록 항일의 투사들처럼, 전화의 영웅들처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리지 못하였지만 조국의 산과 들을 더 푸르게 하기 위한 일에 우리의 땀, 우리의 열정, 우리의 량심을 아낌없이 바쳤기때문이 아닌지.

그것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있는가.

력사적인 4월전원회의 정신을 가슴마다에 새겨안은 천만군민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혁명적인 총공세, 경제건설대진군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조국에 자기의 피와 땀을 바칠 때 그 귀중함을 더 깊이 느낄수 있고 한생을 다 바쳐 사랑할수 있을것이다.

나는 저도 모르게 서정시 《나의 조국》의 한구절을 읊었다.

그렇다, 조국은  
더없이 신성하고 숭엄한 그 무엇  
위대하신 수령님 한생을 바치시는  
겨레의 삶이며 그 무궁한 미래  
죽어서도 안기여사는 영원한 품

그것은 그대를 바라보는 깊은 눈동자  
맑은 거울앞에서처럼  
부끄럼없이 그앞에 서기 쉽지 않으리  
오직 그의 영광속에 그대의 삶이 있고  
그를 저버림은 곧 그대의 죽음인  
조국이란 그러한것

뜨거운 심장없이 안을수 없고  
진실한 사랑없이 부를수 없는  
위대하고 신성한 이름...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조국에 그대의 심장을 주기 전에는!  
...

《바치리라 어머니조국에 나의 모든것을!》  
나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웨치며 우리모두의 더운  
땀이 깃든 양묘장을 떠났다.

(김철주사범대학 학생)